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한류수출의 파급효과 :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례

주요 동향

◇ 주요 철강생산국, 공급과잉 대책 합의 무산

- OECD 주최로 30개국 이상의 주요 철강 생산국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회의를 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
- 2015년 기준 세계 철강 공급과잉량은 8억톤이며, 이 중 4억 톤이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수급 조절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음.
- 문제는 중국이 공급과잉량을 수출확대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한국 등 주변국 철강산업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임.

※ 중국 철강수출물량 : (2009년) 2천3백만톤 → (2015년) 1억2천만톤

-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국제유가, 17일 도하회담 합의 결렬 불구 공급차질 등으로 상승

- 4월 초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주요 산유국 생산량 동결회담 합의결렬로 18일 약세 전환
- 그러나 쿠웨이트 석유 노동자 파업*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 공급차질**, 달러화 약세, 미국 원유생산 리그 수 감소 지속*** 등으로 이후 상승 회복

※ 최근 3주간 두바이유 가격 추이(\$/bbl)

: (4.1일) 36.22 → (5일) 33.83 → (13일) 40.11 → (18일) 37.73 → (20일) 39.03

* 쿠웨이트 원유 생산량은 3월 평균 280만 b/d에서 파업으로 150만 b/d까지 하락

**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 간 분쟁, 나이지리아 파이프라인 문제 등

*** 미국의 원유채굴 건수는 4월 15일 기준 351건을 기록하여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Baker Hughes)

주요 동향

◇ ECB, 정책금리 동결·월별 자산매입 규모 800억 유로로 확대

- ECB는 현행 0.0%인 정책금리와 -0.4%인 예치금리를 동결하고, 월별 자산매입 규모도 예정대로 800억 유로로 확대하기로 결정
- 2016년과 2017년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각각 0.1%, 1.0%로 여전히 ECB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금리 인하 등의 추가 완화조치가 시행될 가능성 제기

◇ 중국, 전략적 해외 M&A 확대 지속

- 1분기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가 1,011억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던 '15년 1,095억 달러에 근접
- 해외 M&A가 활발한 분야는 제조업과 소비재로 산업고도화 및 중국 중산층 공략을 위한 기술, 브랜드 확보에 집중
 - 하이얼의 미국 GE 가전부문 인수, 다렌완다그룹의 미국 영화사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 중국 정부는 저금리 대출 공급으로 해외 M&A를 지원하고 있어 '16년 해외 M&A 규모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

◇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국불안 지속

- 브라질 하원 표결(4.17) 결과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 367표로 탄핵가결 의석수(513석 중 2/3)를 충족, 호세프 대통령의 최종 탄핵 가능성이 높아짐.

※ 탄핵 절차: 상원 특별위원회 표결 → 연방대법원 탄핵심판 → 상원 전체회의 표결

- 민간소비 침체, 투자위축, 수출 감소, 재정적자 등으로 경기침체('1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전환) 국면에 진입한 브라질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16년에도 부정적* 전망

※ 브라질 경제성장률 : 0.1%('14년) → △3.8%('15년) → △3.8%('16년^f)

※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 BB+(S&P), Ba2(무디스)

① 외환시장

구 분	'15년말	'16. 4. 15	'16. 4. 22	전주비
₩/US\$	1,172.5	1,146.2	1,143.1	△3.1
₩/100¥	974.1	1,045.7	1,036.1	△9.6
CNY/US\$	6.4912	6.4720	6.4973	0.0253
¥/US\$	120.4	109.5	110.3	0.8
US\$/€	1.0930	1.1259	1.1294	0.0035

② 채권시장

구 분	'15년말	'16. 4. 15	'16. 4. 22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1.66	1.49	1.47	△0.02
미국 국채(10년)	2.27	1.79	1.86	0.07

③ 주식시장

구 분	'15년말	'16. 4. 15	'16. 4. 22	전주비
한국 KOSPI	1,961.31	2,014.71	2,015.49	0.78
미국 DJIA	17,425.03	17,897.46	18,003.75	106.29

④ 해운시장

구 분	'15년말	'16. 4. 15	'16. 4. 22	전주비
BDI 지수*	478	635	688	53
HRCI 지수**	449	444	442	△2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⑤ 유가

유 종	'15년말	'16. 4. 15	'16. 4. 22	전주비
WTI유 현물	37.04	40.36	43.73	3.37
Brent유 현물	37.28	43.10	45.11	2.01
두바이유 현물	32.19	39.37	41.01	1.64

2 주간이슈: 한류 수출의 파급효과 -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례

◆ 최근 당행이 제작 지원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수출 호조로 본 드라마의 경제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한류 수출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경제효과를 추정

1. 한류 콘텐츠 산업 현황

□ K드라마·K팝 열풍으로 수출산업으로 변모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

- (세계시장) '15년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반도체 산업(3,352억 달러)의 6배 수준
 - 연평균 5%씩 성장해 2019년까지 2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국내시장) '15년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99조6천억원, 수출액은 8.1% 성장한 57억 달러 기록
 - 콘텐츠 수출액은 2006년 이후 연평균 17%씩 성장해 왔으며, 2015년에는 영화(13.1% ↑), 방송(9.3% ↑), 캐릭터(12.8% ↑) 등이 호조

콘텐츠 산업 분야별 수출액 추이

단위 : 억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성장률
출판	2.8	2.5	2.9	2.5	2.5	3.1%
만화	0.2	0.2	0.2	0.3	0.3	5.4%
음악	2	2.4	2.8	3.4	3.6	7.3%
게임	23.8	26.4	27.2	29.7	32.2	8.2%
영화	0.2	0.2	0.4	0.3	0.3	13.1%
애니메이션	1.2	1.1	1.1	1.2	1.2	7.0%
방송	2.2	2.3	3.1	3.4	3.7	9.3%
광고	1	1	1	0.8	0.8	-1.0%
캐릭터	3.9	4.2	4.5	4.9	5.5	12.8%
지식정보	4.3	4.5	4.6	4.8	5.3	9.8%
콘텐츠솔루션	1.5	1.5	1.6	1.7	1.7	0.0%
총계	43.0	46.1	49.2	52.7	57.0	8.1%
성장률*	33.1%	7.2%	6.7%	7.1%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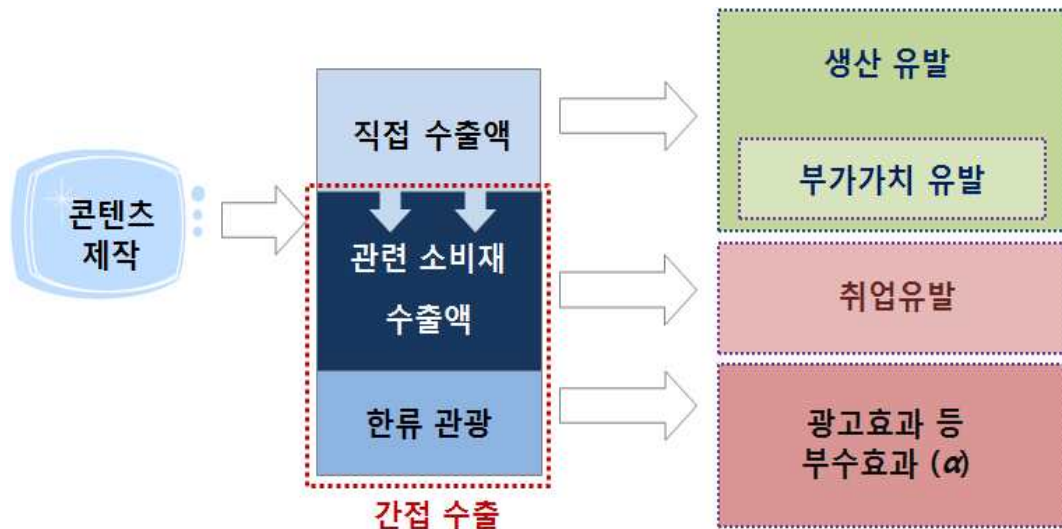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 19.0('11) → △1.3('12) → 2.1('13) → 2.3('14) → △8.0('15)

2. 한류 콘텐츠 수출 파급 경로

- 직접수출 외 소비재 수출·관광 등 간접수출,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
 - 한류 콘텐츠 수출은 해당 분야 수익 증대라는 직접수출효과 외에, 국가 브랜드로 연관되면서 관련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등 간접수출효과도 존재
 - 한류 콘텐츠 및 관련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면 이로 인해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 취업 유발 등 국민경제 파급도 발생

한류 콘텐츠 수출 파급 경로



3. 한류 콘텐츠 수출 효과

- 2015년 콘텐츠 직접수출액 57억 달러·간접수출액 143억 달러
 - (소비재 수출 추정) 2001~2011년 우리나라 문화상품 및 소비재 수출액으로 구성된 92개국 패널데이터 회귀 분석 결과, 문화상품 수출의 관련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분석
 - * 가공식품, 화장품, 의류, 휴대전화 등 한류 노출로 판매에 영향을 받는 소비재
 - 문화상품 수출이 1%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이 0.03% 증가, 2015년 기준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 약 230 달러 견인
(<첨부1>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2012.5) 참고)

- (한류 관광) 우리나라 방문 관광객 가운데 6.5%가 한류 영향으로 조사돼, 2015년의 경우 약 86만명의 한류 관광객 유입을 통한 9.5억 달러(1.1조원)의 한류관광 수출효과 추정
(<첨부2> 한류 관광 수출효과 참고)
- 이에 따라 2015년의 경우 한류 콘텐츠 수출액 57억 달러 외에, 한류 확대에 유발된 관련 소비재 수출액 133.2억 달러, 한류관광 수출액 9.5억 달러 등 간접수출액을 포함한 총 수출효과는 200억 달러 추정
- 콘텐츠 수출액(57억 달러)의 2.5배(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관련 소비재 및 관광 수출 창출

한류 콘텐츠 수출효과

단위 : 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접 수출효과	한류 콘텐츠 수출액	32.3	43.0	46.1	49.2	52.7	57.0
	관련 소비재 수출액	98.0	120.5	139.9	137.8	135.4	133.2
간접 수출효과	한류관광수입	10.2	9.8	9.4	10.4	11.2	9.5
	소계	108.2	130.3	149.2	148.2	146.6	142.7
합계		140.5	173.3	195.3	197.4	199.3	199.7

4. 한류 콘텐츠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2015년 콘텐츠 수출의 총생산유발액 37.3조원 · 취업유발 24만9천명

- 한류 콘텐츠 직·간접 수출의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등 국민경제 파급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추정

(<첨부3> 한류 관련 산업 유발계수 추정 참고)

- 2015년 한류 콘텐츠 직·간접 수출액(22.6조원)의 생산유발액은 37.3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1.1조원, 취업유발은 약 24만9천명
- 콘텐츠 직접 수출액(6.5조원)의 약 5.7배의 생산 유발 및 1.7배의 부가가치 창출, 10억원당 약 39명 취업 유발*

*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취업유발인원(2.9명/10억원) 대비 13배 이상 고용효과

한류 콘텐츠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수출액 (조원)	생산유발 (조원)	부가가치유발 (조원)	취업유발 (명)
직접수출	한류 콘텐츠 수출	6.5	10.9	5.5	97,732
간접수출	관련 소비재 수출	15.1	24.2	4.6	126,848
	한류관광	1.1	2.2	1.0	24,589
	소계	16.1	26.4	5.6	151,437
합계		22.6	37.3	11.1	249,169

5. 드라마 ‘태양의 후예’ 수출 유발효과

□ (직접수출) 중국 400만 달러·일본 160만 달러 등 32개국 총 100억원

- 당행이 제작 지원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제작비 130억원을 사전판매 및 드라마 내 간접광고(PPL) 등을 통해 드라마 방영 전 조달, 현재 수출 진행 중
- 중국(400만 달러), 일본(160만 달러) 외에 대만, 홍콩,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포함 32개국에 수출, 판매액은 약 100억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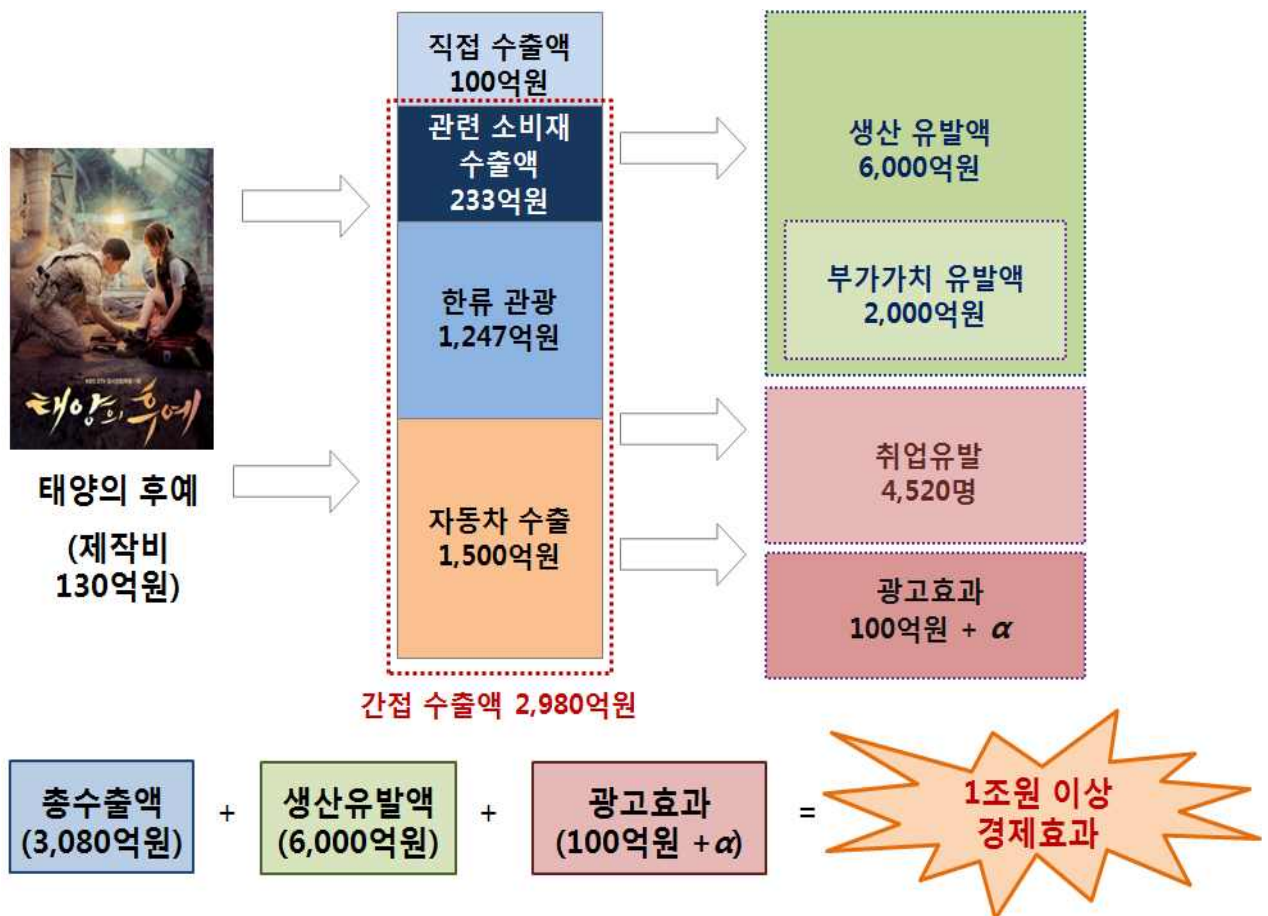
* 현재 확인된 수출액 약 70억원, 드라마 최대 수출작으로 꼽히는 ‘대장금’의 87개국 약 130억원 판매에 근거

□ (간접수출 및 유발효과) 광고 효과 포함 약 1조원 이상 추정

- 관련 소비재 및 한류관광 수출액 1,480억원, 자동차 수출액 1,500억원 포함 총 간접수출액 2,980억원이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 6,000억원 외에 드라마를 통한 직·간접 광고로 효과까지 감안하면 ‘태양의 후예’ 수출 효과는 약 1조원 이상
- 드라마를 방영한 KBS의 광고 수익 약 70억원, 드라마 내 간접광고(PPL)액*은 30억원에 불과하지만 광고 효과는 수십배가 넘는다는 평가

* 현대차, 삼성전자, 라네즈(화장품), 정관장(식품), 로만손(시계), 한화큐셀(태양광), 서브웨이 샌드위치 등 11개사

드라마 '태양의 후예' 수출 효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수출 효과

		수출액 (억원)	생산유발 (억원)	부가가치유발 (억원)	취업유발 (명)
직접수출	한류 콘텐츠 수출	100	169	86	151
간접수출	관련 소비재 수출	233	374	71	196
	한류관광수입*	1,247	2,037	1,118	2,852
	자동차 수출**	1,500	3,438	762	1,320
	소계	2,980	5,849	1,951	4,369
합계		3,080	6,019	2,037	4,520

* 관련 관광객 10만명 추산 (<첨부 2> 참조)

** 현대차 1,500억원(1만대 미만) 효과 밝힘, 현대차 3월 중국 수출량 전월대비 89% 증가한 10만549대 (투싼 15,201대)

6. 시사점

- 문화콘텐츠 산업은 해당 상품 수출 외에 관련 소비재 수출, 관광 효과, 광고 효과, 국가 브랜드 개선 효과 등 간접유발효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타산업에 비해 매우 높음.
-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신성장산업 주요 분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당행에서도 가용 자원을 집중해 정책 효과 극대화 필요
- 특히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금융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해외 합작 영화 등 신사업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수요 창출도 중요

확인자	산업경제팀장	이 재 우
작성자	선임연구원	김 윤 지

첨부 1 : 한류 수출 파급효과 분석

첨부 2 : 한류 관광 수출효과

첨부 3 : 한류 관련 산업 유발계수 추정

<첨부1>

한류 수출 파급효과 분석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 방안(2012.5))

□ 분석 개요

- (분석 데이터) 2001~2011년 우리나라가 92개국에 수출한 문화상품 수출액 및 소비재 수출액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
- (분석방법 및 내용) 문화상품 수출의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 및 소비재 품목별, 지역별 효과를 패널모형으로 추정
- (분석 대상) 문화상품 수출은 영화·방송·음악·출판 수출로, 소비재 수출은 IT제품, 가공식품, 의류, 화장품 수출로 분석
- (분석 결과) 문화상품 수출이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문화상품 수출이 1%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이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문화상품 수출의 소비재 수출 견인효과 요약

계수 (탄력도)	의미
0.030**	- 문화상품수출 1% 증가시 소비재수출 0.03% 증가 - 2015년 기준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증가시 소비재 수출 평균 230달러 증가 추정

주1: 계수값은 고정효과모델의 결과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첨부2>

한류 관광 수출효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관광객수 (천명)	8,798	9,795	11,140	12,176	14,202	13,232
한류관광객수 (천명)	889	803	780	889	923	860
한류관광객 비중 (%)	10.1	8.2	7.0	7.3	6.5	6.5*
1인당 평균 지출액 (\$)	1,143	1,224	1,201	1,168	1,211	1,102
한류관광수출효과 (억달러)	10.2	9.8	9.4	10.4	11.2	9.5

주: 한국관광공사 <2014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설문 내용 및 관련 통계를 토대로 작성

* 2015년 한류 관광객 비중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14년 수치 적용

‘태양의 후예’ 관광 수출효과 추정

한류관광객수* (만명)	1인당 평균 지출액 (달러)	한류관광수출효과 (백만달러)	한류관광수출효과 (억원)
100,000	1,102	110.2	1,246.9

* 관광객수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 김수현의 국내 팬미팅 외국인 참가자 2.2만명(2014.1),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인천 송도 석산) 올해 방문 예상객 5만명 및 드라마 ‘대장금’ 테마파크 연간 외국인 방문객 평균 10만명(2005~2007년의 경우 18.9만명, 24만명, 13.7만명) 등을 반영해 10만명 추산

<첨부 3>

한류 관련 산업 유발계수 추정

		코드 번호	산업분류(통합중분류)	생산유발 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 계수 (명/십억원)	
콘텐츠	출판만화	063	출판업	1.306	0.426	19.4	
	음악	079	문화서비스업	1.378	0.756	22.3	
	게임/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062	소프트웨어개발및 컴퓨터관리서비스	1.813	0.979	13.9	
	영화/애니메이션/ 캐릭터	064	영상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1.319	0.459	16.5	
	방송	060	방송서비스	1.615	0.677	13.2	
	광고	072	사업관련전문서비스	2.239	1.139	24.9	
콘텐츠 산업 평균				1.612	0.739	18.4	
소비재	식품	008	식료품제조업	3.409	0.444	20.0	
	화장품	02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2.181	0.532	7.1	
	의류	011	섬유 및 의복제조업	2.345	0.542	10.8	
	휴대폰/가전	039	통신방송및영상음향기 기제조업	1.418	0.278	7.5	
		040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				
관광			054	육상운송서비스	2.041	0.897	22.9
			058	음식점 및 숙박업			
			079	문화서비스업			
			080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자동차		042	자동차	2.292	0.508	8.8	
관련 소비재 및 관광, 자동차 평균				2.281	0.533	12.8	
전체평균				1.946	0.636	15.6	

주 1: 2013년 산업연관표 기준, 산업 분류는 통합중분류 적용

주 2: 동일 분야 내에 여러 산업이 포함 될 때에는 평균 수치로 추정